

# “나눔·연대정신 키우자” 광주 청년 봉사단 났다

### 市, 21기 청년·대학생 244명 참여...문제해결·돌봄 앞장 姜시장 “오늘의 봉사가 내일의 나를 성장시키는 큰 거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키우기 위해 광주 청년들이 뭉쳤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지역 대학생과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빛고를 청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빛고를청년봉사단은 11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244명이 참여한다. 청년봉사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자원봉사 문화를 주도한다.

또 환경 문제, 사회적 소외 등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온기나눔팀’과 지역아동센터 초·중등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등을 하는 ‘광주돌봄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김재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봉사단 선서 및 리더 위촉식, 자원봉사자 특강, 온기나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현·임정빈 학생이 봉사단을 대표해 지역사회 발전과 빛나는 자원봉

사 문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봉사단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나이저리아 출신인 하루나 자원봉사자의 우수봉사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하루나씨는 빛고를청년봉사단 리더로 2018년부터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봉사 활동 및 사회·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실천 중이다. 하루나씨는 2023년 자원봉사 경연대회에서 ‘세

상을 바꾸는 시간 광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기정 시장은 이날 청년들을 만나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광주’로 주제를 청년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청년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 정책플랫폼’, 해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갬이어’, 창업·일자리·주거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기정 시장은 “청년 시절에 5·18민주화운동을 알고 싶어 봉사 단체를

만들어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만났다”며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길 바란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나를 키우는 큰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빛고를청년봉사단은 2007년 시작해 올해 18번째 운영 중이다. 농촌일손돕기, 무등산 생태환경 봉사활동, 지역 축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만2천67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박성강기자



너릿재 명품 숲길 함께 걸어요 지난 13일 광주 동구 선교동 너릿재 명품 숲길에서 ‘가족과 함께 1530’ 건강걷기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천천히 걸으며 느낌의 미학을 즐기고 있다. ‘1530’ 걷기는 1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캠페인이다. <광주동구 제공>

### 광주호 호수생태원 ‘해우소’ 새단장

광주시는 14일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대표 테마시설인 ‘해우소-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황 작가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최근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설계 및 작업자로서 ‘해우소’ 정비 공사를 현장 지휘했다. 황 작가는 자신의 작가정원인 ‘해우소’에 엄선한 수목을 추가로 심고 작품 주변 수목을 호수생태원과 어울리게 적정 공간에 직접 재배치했다.

황 작가의 ‘해우소-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은 2011년 영국 첼시플라워쇼 최고상과 금메달을 동시 수상한 작품으로 2014년 황 작가가 직접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재현해 선보였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황 작가의 자문을 받아 해우소 주변에 야생화 등 지 식물종을 추가로 심어 ‘해우소’를 더욱 아름답게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강기자

## 道, 다문화복지 실현...결혼이주여성 정착 유도

### 다문화가족 도청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추진

전남도가 정주인구·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등 출중한 다문화복지를 실현, 결혼이주여성 정착을 지원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다문화 가정 가구 수는 1만5천666세대(전국 대비 3.9%-8.9%), 가구원 수는 5만1천131명(국내 인구 2.8%)으로 전국의 약 4.4%를 차지하며 7번째로 많다. 다문화 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총 1만3천422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다문화정책으로 사회 통합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교육·운영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결혼이주여성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대다수 지원 정책이 가족센터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시·군 가족센터 모국어 상담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다문화여성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베트남

출신 다문화여성을 공개 채용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상담을 진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애로사항 수렴 후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베트남 37명, 필리핀 6명, 캄보디아 4명 등 총 54명이 상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달 중순부터 희망하는 달에 맞춰 현장 상담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결혼 초창기 낮은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끌어주고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특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대한민국의 조기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 市, 피자·햄버거 등 조리점 496곳 대상

광주시는 14일 ‘피자·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496개소에 대한 위생 관리 2차 상담(컨설팅)을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대비한 것으로 광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이 참여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등을 확인한다.

특히 세균오염도조사(ATP) 측정기

를 활용해 종사자 손과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비교해 손씻기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산가족정지부를 활용해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 영업자들에게 올바른 튀김유 사용과 교체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시민의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전남개발공사 지난해 579억 흑자

### 2004년 설립 후 최대...9년 연속 흑자 경영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57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23년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원가 관리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은 5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전남개발공사 창립 이후 최대 흑자 규모다.

재무적 안정성도 강화됐다. 2023년 말 부채 비율은 47%로 낮아져 최근 10년 사이 가장 안정적이다. 금융 비용을 수반하는 금융 부채 비율도 37%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분양 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인 한편,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로 이익 감소 요인을 사전

예측하고 사업별 공정을 관리, 철저한 원가 심사 등 종합적 재무 관리를 이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단 드림팀’을 구성,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완관’을 이뤄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발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지역특화형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전남도와 함께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내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들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